

소도마을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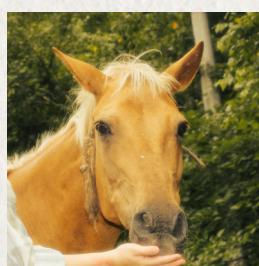
소란한
도시를 떠나
강원도 산골 소도마을로.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작은 마을엔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방법대가 있다. 청춘과 웃음이라는 단어로 완전무장한
민교, 승빈 그리고 유라. 삼총사를 만나러 화천으로 떠났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이에
소도마 놀리는 마을이 있었어요
세상의 부정한 기운과 무질서의 경계를 지우고
열두 가의 봉우리와 구름모자 쓴 산 어머니 있는 곳

모든 것은 5년 전 인연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한 브랜드 웍크숍에서 알게 된 민교. 서로의 SNS에 가끔 ‘좋아요’나 누르는 느슨한 친구 사이였건만, 문득 그 애가 살고 있는 예술인 마을이라는 곳이 궁금해진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소도마을 방범대’ 계정을 둘러보다 엄지를 몇 번 눌려 도착한 또 다른 방범대원 유라의 영상에서 이 노래를 만났다. 맑은 목소리와 직접 썼다는 가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구름모자 쓴 산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아마도 필연이었다.

삼 주 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똥뚱한 배낭을 메고 사창리 시외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다. 나와 동료들은 인터넷 예매 서비스도 없는 오래된 터미널에서 비동사동인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거기서 다음날 돌아갈 버스를 미리 봐 두고 배낭을 고쳐 맸다. 터미널 밖으로 발을 내딛자 발치에서 풀벌레 한 마리가 뛰어올랐다. 여행의 시작이었다.



소도마을은 공예미술학교 ‘신농학당’이 주관하는 곳이다. 1만 5천여 평의 넓은 숲에 둘러싸인 마을에 열두 가구가 오손도손 모여 산다. 소속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를 여는 ‘하갤러리’, 직접 만든 잔과 그릇을 판매하는 카페 ‘잔미술관’, 게스트 하우스 ‘수선재’가 있고, 풍물놀이나 달집태우기 같은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한다.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 육아로 자라나고, 직접 일군 텃밭에서 땀 싱싱한 채소를 아침으로 먹는 곳. 길목에서 있으면 어슬렁어슬렁 혼자 산책 나온 옆집 말 ‘다롬이’를 만나는 곳. ‘동물의 숲’ 게임이 현실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소도마을 디아어리



작지만 풍성한 이 마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생각이 소도마을 방범대의 시작이었다. 방범대는 좌충우돌 일상을 담은 영상을 만들며 주말마다 숙박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입을 모아 말하는 한 가지. **소도마을은 이들에게 고향이다.**

민교 아버지가 신농학당 대표님이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려왔어. 나는 입주한 지 5년 정도 됐고 유라는 2년, 승빈이는 10년. 소도마을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상한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웃음) 그게 재밌어.

승빈 사실 내 고향은 부산이지만 거기선 항상 유목민 같은 느낌이 들었어. 여기 있을 때 제일 안락하고 편안해. 가끔 서울 가면 하루만 지나도 빨리 도시의 피폐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

유라 신기하네, 나돈데.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지만 여기가 처음으로 ‘나’로 살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해 주거든.

시골은 도시에 비해 많은 것이 부재할 터. 하지만 ‘부재’와 ‘부족’은 다르다. 없어서 더 채워지는 것이다. 예컨대 **소도마을에는 시선이 없다!**

민교 앞에 자갈 깔린 마당 보이지? 쉬는 날엔 거기 그냥 대 자로 누워 있어. 손님들이 들어오시다가 막 놀라.(웃음) 우리끼리 수선재 옥상에 기타 하나 들고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도시에서는 남들 시선 때문에 못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여기서는 다 돼.

정말이었다. 나만 해도 그날 낮, 호수 앞 비포장도로를 달음박질치고 숲속 바위 의자에 드러누웠으니까. 쿡쿡 웃다가 질문을 바꿔 물었다. “그러면 도시에 없지만 **소도마을엔 있는 건?**” 돌아온 대답을 듣고 나는 잔뜩 부려운 얼굴이 됐다.

민교 별똥별. 새벽에 누워 있으면 계속 떨어져. 유라가 저번에 엄청 큰 거 봤는데, 무슨 색이랬지?

유라 초록색! 만화랑 똑같았어. 불씨가 육각형을 감싸고 있는 모양 있잖아. 딱 그랬다니까.

승빈 별똥별이 생각보다 천천히 떨어져. 혹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피웅~(웃음) 하루에 일곱 번도 본 것 같아.

유라 맞아. 특히 겨울에 별이 진짜 많거든. 패딩하고 이불로 몸을 꽁꽁 싸매고 옥상에 네다섯 시간 동안 누워 있기도 했어. 계속 “우와~”하면서.

승빈 서울에서 못 보는 어둠이 여기엔 있지. 가로등도 없으니까.

유라 서울 살 때는 달빛에 그림자가 있다는 걸 몰랐다? 여기 와서 나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고 전봇대인 줄 알았는데 보름달이었어. 그만큼 달빛이 밝아.

Travel



* 위에서부터

유라, 승빈, 민교다.

소도마을 다이어리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순간이 있다면, 반대로 자연과 맞서야 하는 순간도 있다. 시골에서의 시간은 산과 들의 시침을 따라 흐른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게으를 수 없는 것이다.

민교 보통은 계절에 맞춰서 일하거든. 여름에는 제초하느라 풀과의 전쟁이고, 겨울에는 내내 삽들고 제설만 해. 자연이 인간의 영역을 파고들 때마다 울타리를 만드는 셈이지.

승빈 자연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세 원상태로 돌아가. 마당에 있는 잔디도 그냥 놔두면 우리 키보다 높게 자랄 거야.

민교 그래서 가을이 참 좋은 게, 제초나 제설처럼 에너지를 엄청 쓸어야 하는 일이 없거든. 가을이면 마을 연례행사처럼 다 같이 곶감을 만들어. 거의 천 개 가까이 깎아.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오며 가며 하나씩 따 먹거나 택배기사님 드려. 그러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들 변비 걸리고.(웃음)

소도마을의 고유한 시간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이웃을 만났다. 다섯 살배기 꼬맹이는 마을을 탐방하는 우리를 줄줄 따라다녔고(모델을 자처하기도 했다!) 말 ‘다름이’네 아저씨는 짜리고추가 가득 든 비닐봉지를 손에 쥐여 주셨다. 마을이 뭐길래. 이웃이 뭐길래.

민교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식구야. 밥식(食)에 입구(口).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가끔 미워 죽겠어도 밥은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결국 밥때 되면 다 모이는 거지. 꼴 보기 싫어도 같이 밥 먹다 보면 넘어가게 돼.

유라 한 번에 2~30인분씩 요리하니까 혼자서는 못 하거든.

민교 잡채도 40인분씩 만드는데 그게 이틀이면 없어져.

소중히 나눠 담아 서울로 가지고 온 짜리고추는 우리 집 식탁에 오르자마자 동났다는 후일담.



올여름부터 방법대에게도 텃밭이 생겼다. 200평 정도 되는 긴 땅을 삼등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관리한다. 올해는 깻잎만 잘 돼도 성공.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농사는 하늘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른다. 하지만 대파나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처럼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순항 중이다. 얼마 전에도 텃밭에서 딴 가지로 가지 덮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민교 유라가 희한한 거 많이 심었어. 유라 밭이 제일 비옥하거든. 보통 오이나 가지 정도인데 갑자기 수박을 심지를 않나.

승빈 ‘홍대병’이 좀 있는 거지.

유라 뱃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땅을 정했는데 내가 져서 입구에서 제일 면 안쪽 땅이 된 거야. 계속 투덜대니까 승빈이가 “애도 아니고 뭐 하냐”하면서 땅을 바꿔 줬어. 근데 애네 밭에 있는 건 전멸하고 내 것만 풍요로워서 승빈이가 엄청 억울해했지.

승빈 나만 저주받은 땅을 받았어. 심는 족족 죽는다니까. 유라가 농약을 치는 게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일동 웃음)

Travel



소도마을 다이어리

방범대의 우정은 어린아이들의 그것 같다. 또는 오래된 연인의 그것. 이들과 함께 있는 내내 나는 이 우정이 부러웠다. 술 새 없이 짓궂은 장난을 치고, 그러다 싸워도 저녁 메뉴를 고르며 화해하는 유치한 우정.

민교 나는 원래 친구 사이에 비밀을 잘 못 뒤. 내 패를 다 까. 그래서 진실게임이 아예 불가능한 관계야. 애네는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우린 진짜 우정 아니면 죽음뿐이야.(웃음)

승빈 애네 앞에선 정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놀라운 건 그게 가족에게도 안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야. 셋이 같이 있으면 초등학교 때처럼 원초적으로 ‘하하 호호’ 노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려.

유라 응. 엄청 많이 웃어. 1시간 중에 4~50분은 웃을걸. 연인이랑 싸우고 나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스릴 덕분에 기분이 풀린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그래. 싸워도 막 웃고 나면 다 까먹어. 기분 안 좋다가도 단순해서 같이 밥 먹고 나면 괜찮아지고.



이들의 말을 듣고 이날만큼은 내 패를 까고 싶어졌다. 여행을 평계로 잠시 미뤄둔 고민을 꾸역꾸역 끄집어냈다. 나는 사실 요즘 좀 휘청거린다고. 나와 비슷한 해에 태어나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이들은 두렵지 않은지 궁금했다.

승빈 (유라에게) 아까 그 명언 한번 해 줘.

유라 사실 우리끼리 했던 얘긴데, 나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시기마다, 또 사람마다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 거기에 묵묵히 맞서는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내 특별함이 되는 것 같아.

민교 맞아. 잘 맞서는 법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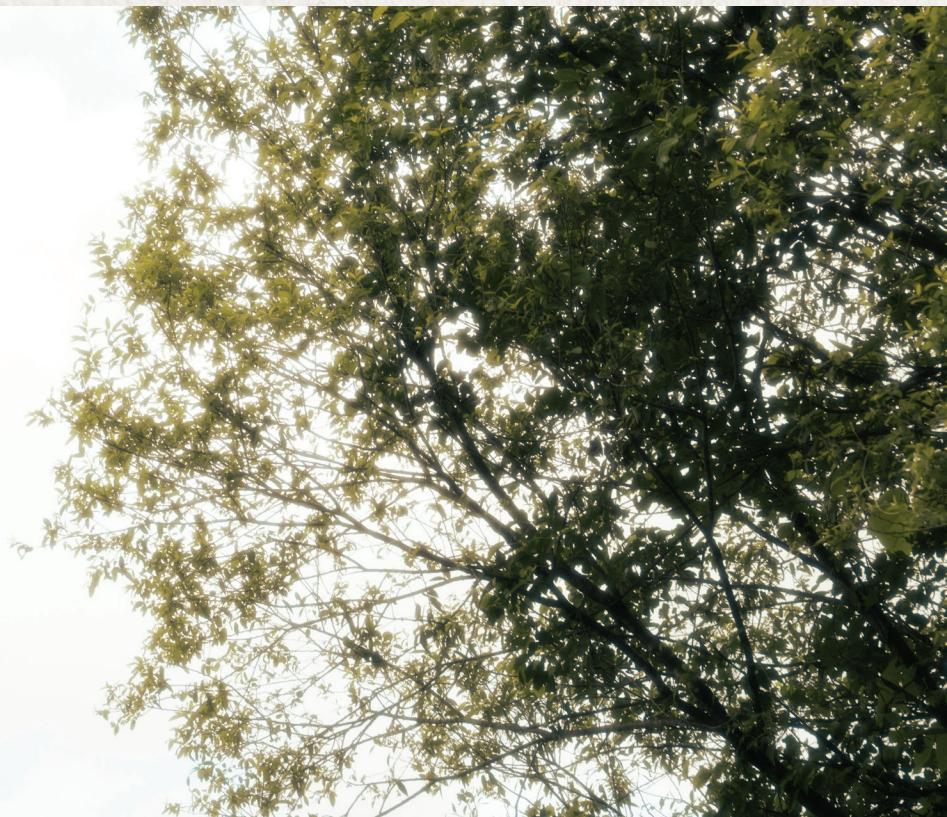
승빈 오히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대책이 없는 걸 수도 있어.(웃음)

마지막으로, 소도마을 방범대로 해 보고 싶은 건?

유라 팬 미팅!(일동 웃음)

우리의 대화는 야심한 밤, 차담으로 이루어졌다. 잘 준비를 마치고 숙소 공용 공간에 둉그렇게 둘러앉자 그 사이에 캠프파이어 불이 보이는 듯했다. 목을 타고 내려가 몸속에 퍼지는 따뜻한 차와 그걸 닮은 건강한 대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날은 아쉽게도 별은 안 보였지만 우리는 방범대가 말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했다. 아득할 정도로 깜깜한 마당에서 개구리들이 이중주, 삼중주로 노랫소리처럼 울었다.

장마가 막 끝날 무렵의
소도마을에서는 걸음마다
풀벌레들이 풀짝풀짝 튀어 올랐다.
초점을 맞추려 몸을 숙이면
작은 친구들은 달아나고 없었다.
내가 그곳에서 느낀
행복도 그런 거였다.
닿을 수 없는 뜬구름 같은 게 아니라
발치에서 무수히 튀어 오르는 것.
앞으로 소도마을이
맞이할 사계절을 상상해 본다.
올해 꽃감은 얼마나 달콤할지,
겨울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눈을 치울지,
봄에는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필지,
방범대의 텃밭에선
또 무슨 열매가 열릴지.



차담을 마치고 방범대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었다.
서로에게 못다 한 말을 써 달라는 말에
그들은 꽤 오랫동안 고민하는 듯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간 뒤, 나는 꼬깃꼬깃 접은
쪽지 세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펼쳐 놓았다.
꼭 텃밭 모종처럼 일렬로 놓인 쪽지 안에는
전부 같은 말이 담겨 있었다.

“나의 일바닥까지
보게 하는 친구
같고, 닮고, 저런 시켜줘서
고마워.”

“난 세상 어려워진
땅에 양한 흙과 향기 고마워
든든한 리더야.”

“고마워 넌 마을길이
좋아해. 항상 고마워”

INFO

Instagram
Youtube

@sodo_protector
소도마을 방범대 sodo protector